

월봉서원 전통 토석담장 부실공사 의혹

완공 2년만인 2013년부터 붕괴... 전반적인 보수 시급

광주 8경이자 조선시대 대표서원인 월봉서원 진입로의 전통 토석(土石) 담장이 완공 2년 만에 붕괴(사진)돼 부실공사 의혹과 함께 전반적인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이 예고되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가 붕괴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 광산구와 월봉서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월봉서원(광산구 광곡길 120) 진입로의 전통 토석담장 460m 중 일부 담장돌이 탈락현상 등을 겪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해빙기를 거치면서 담장 아래로 습기 등이 스며들어 담장균열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담장을 지탱하는 흙과 돌이 쏟아지는 등 담장 전체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는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토석 담장에 습기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좌·우측진입로 보수비로 3억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주체인 광주시에 관련 사업비의 시급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월봉서원 입구 전통 토석 담장은 광주시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8억원을 들여 서원 내 교육·체험관, 정량산 실개천 복원 등과 함께 만들어진 시설물이다.

토석담장은 마을회관에서 월봉서원까지 좌·우측 각각 230m, 높이 1.8m로 조성됐으며, 완공 후 2년여만인 지난 2013년부터 담장 무너짐과 균열 등이 발생해 부실공사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월봉서원 인근 주민들은 “토석담장 공사가 시작된 직후 서원 임원진 등에게 배수처리 등이 미흡해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면서 “특히 완공 후 2년여 만에 붕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월봉서원을 돌보이게 해야할 토석 담장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홍물로 전락하면서 서원을 찾는 탐방객의 불만도 높다”며 “담장 보수 공사와 함께 당시 공사 담당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월봉서원

‘신발 바르게 벗기’ 캠페인 호응

핵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주관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기관인 (사)핵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가 광주 U대회를 앞두고 ‘신발 바르게 벗기’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핵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는 광주 시, 광주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지회의 외식업소 등 기관, 단체, 시민, 학생들에게 50만장의 캠페인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실천을 위해 연구소가 제안한 방법은 ‘신발 바르게 벗기’를 계몽하기 위한 스티커 부착이다.

스티커를 신발장이나 환관 주위에 부착해 신발을 벗을 때마다 행동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발 바르게 벗기’ 캠페인은 말 그대로 ‘신발을 바르게 벗어 두자’는 것으로 선진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게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내달 4일 광주시 소재 주요

외식업 밀집지역에서 중고생, 대학생, 시민들이 참여하는 ‘신발 바르게 벗기’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스티커 부착 독려 및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나 학생이면 누구나 이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1365 자원봉사 나눔 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사)핵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관계자는 “삶의 작은 습관 하나를 개선함으로써 인식이 바뀌고 인성까지 바뀔 수 있다”면서 “신발 바르게 벗기처럼 평소 별 것 아니라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습관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생활 전반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등을 펼치는 비영리 봉사단체 핵소미아연구소는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행해 왔다.

연구소는 내달 4일 광주시 소재 주요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견고 싶은 보도’ 만들기 추진

공사실명제·장애인 참여

광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견고 싶은 보도’ 만들기 예산을 살피고 있다.

시는 최근 보도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향후 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공사 참여업체와 기술자의 이름을 표지판에 새겨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첫 번째 표지판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주변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열린 첫 현판식에서는 민선 6기 공약인 ‘보도공사 관리자 실명제 및 하자책임 강화’를 다짐하는 한편 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유현섭 광주시지

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이 직접 참여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지등을 살펴보고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로과장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는 ‘보도공사 실명제’가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견고 편한 광주시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견고 싶은 보도’ 조성을 위해 보도공사 실명제와 함께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행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시민 보행길 모니터링 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고 컴퓨터로 사랑 전하세요”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랑의 중고 PC 보급 사업’이 정보소의 계층을 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랑의 중고 PC보급 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민간단체, 개인이 기증한 중고 PC를 정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내는 이웃사랑 행위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3985대가 보급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해 계층간 정보 해소는 물론이고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귀여리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PC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기증 운동을 활발히 펼쳐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U대회 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운영계획보고회 열고 점검

홍보·교통 등 9개반 61명

광주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을 지원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종합상황실장인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첫 U대회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 보고회를 열고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카카오 단체톡방 운영으로 문제점 발생시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현장점검반) ▲과도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지도(숙박보전반) ▲경기장 및 선수촌 주변 청소실시, 공중화장실

책임자 지정(가로청결반) ▲개·폐회식 및 선수촌 주변 교통대책(교통수송반) 등 각 반별로 대회 지원상황을 보고하고, 응급 의료기관·경기장별 지정병원, 본부호텔 등 유관기관·단체 등의 비상연락망 등도 공유했다.

문인 종합상황실장은 “조직위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빈틈없이 실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조직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시 상황실과 공유토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U대회 종합상황실은 홍보, 문화, 숙박, 가로청결, 교통, 시민참여, 소방 등 9개반 61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U대회 종합상황실 첫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회운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2018년까지 4000가구

광주시가 공동주택 내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4000가구에 ‘발코니형 및

고밀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는 광주지역에 설치되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설치해 하루 3시간 가동하고 전기를 생산해 곧바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다.

사업 참여 가구는 총 설치 비용 70만원 중 50%인 35만원을 지원받는다(자부담 35만원) 250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월 3000원~1만원 가량 전기료를 절약

하면서 5년간 무상 사후관리(AS)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85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참여(시)공인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강력 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1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 하실 분도 모심!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담양댐, 한마음연수원,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 금성 → 금과 →